

포천연극협회 "뮤지컬 블루사이공" 공연 성황

포천연극협회(회장 이희용)가 베트남 전 참전 병사의 삶을 다룬 "뮤지컬 블루사이공"을 지난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에 걸쳐 반월아트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렸다.

이날 연극공연은 오전에는 학생 1천5백여명이, 오후에는 일반관객 500여명이 관람했다.

'뮤지컬 블루사이공'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병사의 생애를 다루지만,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을 표현하며, 나아가 전쟁과 테러의 비극이 여전히 오늘날의 모습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공연에 대해 이희용 포천연극협회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포천연극협회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단원 여러분의 노고와 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천시민의 수준높은 연극감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포천신문을 비롯해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등의 후원은 더욱 행사 의미를 빛내 주었다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조영남·노사연이 함께 하는 모스틀리팍스오케스트라 빅 콘서트

24일 오후 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조영남과 노사연, 모스틀리 팍스오케스트라가 24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친다.

성악을 전공하다 대중가수로 진로를 변경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두 명의 가수가 기특하게 콘서트를 연다. 주인공은 바로 조영남과 노사연, 이들이 펼치는 2시간동안의 소리의 향연이 24일 오후 7시 30분 포천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조영남은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고 뛰어난 예술적 기질을 타고 났으며,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노래에는 세상살이의 외로움과 고뇌가 담겨 있다. 데뷔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의 가창력과 아름다운 노래들은 우리 어깨 위의 힘든 짐들을 잠시

풀어놓게 만들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는 묘한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객들이 조영남을 찾는 이유이다.

노사연은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가요계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뒤 언더그라운드에서 이광조, 이문세, 해바라기 등과 통기타를 치며 뛰어난 서정성으로 감성을 노래로 꾸준한 사랑을 쌓아온 가수다. 그 후 2집 수록곡 '만남'이 1991년 최고의 인기곡으로 떠오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 바 있다.

또 이날 공연에는 클래식의 일상화를 추구해 온 모스틀리팍스오케스트라(MPO-Mostly Philharmonic Orchestra)가 이들과 합류해 20~40대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 예정이다.

공연에서 모스틀리 팍스오케스트라는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 매들리', 'Sing, Sing, Sing' 등, 조영남은 '제비', '내고향 충청도', 'Proud Melv got rhythmry' 등, 노사연은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넌 그림자' 등을 포천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관람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문의: 530-8938-40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33)

서각가 홍인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게 되면 숨겨져 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서각가 홍인봉(36)씨도 그런 경우다.

그는 올해 초 제4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문화서각대전에서 서각부분 5개 분야를 휩쓸며 오체상을 받고 초대작가가 돼 포천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전해준 바 있다.

그런 그에게서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바로 제9회 대한민국중부서예대전에서 삼체상을 받고 초대작가에 선정된 것. 그가 서각에 입문한 지는 채 3년도 되지 않았다. 또 분업을 갖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서각을 하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다.

그는 "서각이 이제 한창 보급되다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겸손해 한다.



서각 입문 2년만에 공모전에서 잇따라 초대작가로 선정된 서각가 홍인봉씨.

짧은 교육기간 불구하고 日就月將하며 두각 보여 書체는 종합예술...포천에서도 널리 보급되길 희망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가 이만큼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들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서각을 하기 전 서예를 먼저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됐다. 15년 전 윤천의 영문서예에서 붓을 든 뒤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서예를 배우고 있는 것.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철원에 서각협회강원도 지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찾아가 서각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히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다. 강원도서각협회 전부경 지부장은 그의 '일진월보(日進月步)'에 바탕이 되어 주었다. "서각은 종합예술이죠. 글도 알아야 하고 색채 감각도 있어야 하고 서각 기법도 익혀야 하죠."

서각 분야도 크게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으로 경향이 분류되는데 그는 현대서각에 더 관심이 많다.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이기에 현대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이다. 또 전통만을 고집해 그 정해진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이고 조형개념이 가미돼 심미성이 뛰어난 현대서각이 더 흥미롭다.

하지만 그는 "물론 전통적인 요소는 기본으로 갖춰야 하죠.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지않아요?"라는 말도 덧붙인다.

포천은 다른 시·도에 비해 서각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서각가가 많지 않은 뿐 아니라 교류도 그다지 없다. 그도 포천에 서각을 보급하기 위해 앞장서고 싶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조금만 더 여유가 되면 저희 사무실 옆에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서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강습을 하고 싶어요"라고 희망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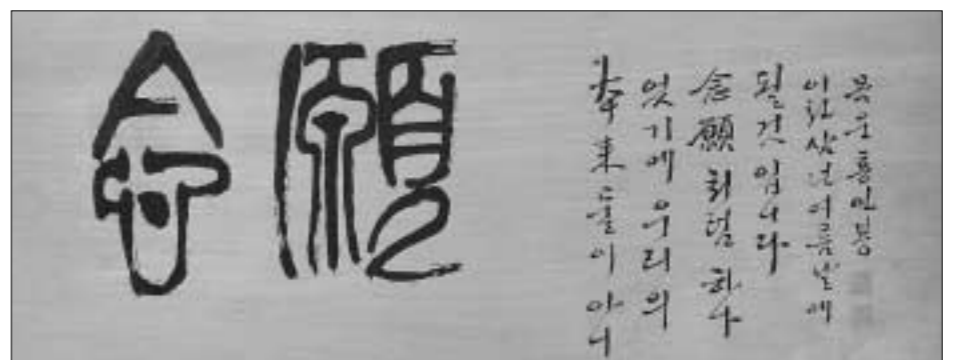
홍인봉은?

제1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 특선/제6회 대한민국 화성 서예대전 특선/제4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문화 서각대전 오체상, 초대작가/한국 미술협회 회원/한국서각협회 강원도지부 사무국장/포천조경 대표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묵문 홍인봉의 작품 '포주신'



묵문 홍인봉의 작품 '염원'

연재 수필

<제5화> 춘 궁 기

김순진아버지는 장려소를 매신다며 외양간을 짓기로 하였습다.

나무가 너무나 귀하던 시절이라, 집짓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방산에서 서까래를 엮을만한 소나무 몇 그루를 몰래 베어왔습다. 혹시라도 산림감수에게 들리면 형사 입건되어 지사에 불잡혀 간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습다. 몰래 베어온 소나무를 뒷걸에 감추어 두고 껍질을 벗기시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하두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단다." 그런 아버지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다. "소나무 껍질이 무슨 맛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배를 채웠을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세대의 춘궁기로 무슨 맛이 있거나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습다. 그냥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는 목숨 부지의 수단입습다. 그런 아버지 세대의 춘궁기이다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대로의 춘궁기입니다. 삼월 말이면 뼈죽뼈죽 열었다 녹은 땅을 밟고 올라오는 냉이와 꽃다지는 우리의 양식거리를 채워줍니다. 꽃다지는 국을 끓이거나 된장에 무쳐 반찬으로 먹습다. 그렇지만, 냉이

는 사정이 좀 다릅다. 토장국을 끓이거나 된장,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쳐 반찬으로도 먹기도 하지만 맛물에 간 보릿겨 개떡에 냉이 뿌리를 잘 씻어 함께 조물조물 무쳐 냉이 개떡, 냉이 버무리를 만들어 먹지요. 맛은 그리 좋지 않지만 배고픈데 대할까요? 논두렁에서 캔 메 뿌리도 우리의 끼니를 때우는데 한 몫 합니다. 메는 논두렁의 땅속에 죽죽 뻗으며 뿌리로 번식하는 나팔꽃 모양의 분홍색 꽃이 피는 식물인데 그 뿌리는 호미로 캐어 깨끗이 씻어 푸성귀로 날로 먹어도 맛이 달작지근하니 맛이 있습다. 시루떡이나 개떡에 넣은 호박 줄기 말린 것을 넣는 것처럼 넣으면 양 늘이는 데는 그만입습다. 밥을 맛있게 먹고 먹나요? 배부르라고 먹지요.

우리가 자라는데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식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쑥이라 말할 수 있습다. 사월 초면 쑥쑥 올라와 쑥이라 이름 지었다던 쑥은 줄곧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다. 쑥버무리가 그것입습다. 연한 쑥을 갈로 캐어 씻고, 밀가루에 버무리면 쑥버무리가 되고, 보릿가루나 쌀가루에 주물럭주물럭하여 술에 찌내면 쑥

개떡이랍다. "야, 이 쑥국은 언제 먹어도 좋단 말이야." 아버지는 쑥국을 훌훌 들이키시며 맛있다고 말하시지만 나는 정말 쑥국이 싫습다. "그게 뭐가 맛있어요? 고깃국이 맛있지?" 내가 아버지 말씀에 대꾸를 합니다. "먹기 싫으면 관둬입마!" 아버지께서는 맛있다고 내 국까지 뺏어다 잡습다. 그 위에 쑥국은 좀 먹기 싫었지만 그래도 맛들로 간 풍가루나 좀 넣으면 구수한 맛이 먹을 만 했습다.

쑥은 농촌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으로도 통하습다. "너 희들 모두 이리와 봐!"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를 부르습다. 봄이면 아버지는 배탈이 잘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여름에 배어 엮어서 말려 둔 쑥을 한 숟가락씩 끓여 조석으로 우리에게 쑥물을 먹이습다. "안 먹어요, 아버지! 그거 되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거역을 못하습다. 희초리를 가져다 옆에 놓고 쑥물을 먹이시니까요. 쑥물을 먹고 난 뒤 눈썹사탕이라도 하나 주시면 좋으련만 그 눈썹사탕이 그리 흔하지 않습다. "물 줘요, 물!" 쑥물이 마시무 써도 뽕수나 한 양재기 마시는 것이 고작입습다. 쑥물은 배

양미를 자주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방약이요, 앓고 난 사람에게 먹이면 입맛이 돌아오는 효험이 있습다. 손가락을 좀 다쳐도 쑥을 찢어 붙였습다. "애야, 현 난닝구 좀 찢어가지고 나오너라" 논두렁의 풀을 꺾으시면 아버지께서 손을 낮으로 베셨나 봅니다. 갑오징어 뼈를 끓여 가무를 뿌리시고 그 위에 쑥을 톨로 찢어 붙이신 뒤, 현 난닝구(런닝)를 찢어 감으습다. 피는 금방 엉겨붙고 나오지 않습다. "바라, 오징어 뼈랑 쑥이 최고지." 아버지는 당신의 상처를 현 난닝구(런닝)를 찢어 감으시며 말씀하습다.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ca 011-9123-4422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 이 함께 합니다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다"



代表 文宰吉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술잎·쫄·쑥국수

☆영동 1호 세트 100g×36人分 3.6kg

☆영동 2호 세트 100g×24人分 2.4kg

본 사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 화 : 031-535-5773 // 팩 스 : 031-534-1313
E-mail : www.youngdong93@hanmail.net